

이른 폭염 전망에...백화점업계 여름대전 앞당긴다

광주신세계, 27일까지 '서머 패션 페스티벌' 개최
 롯데백 광주점, 스포츠·아웃도어 최대 60% 할인
 역시즌 마케팅도 열려... 박성룡 모피 40% 할인 판매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다.

9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여름상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성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평년보다 1주일 빠른 11일부터 27일까지 '서머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 '크룩스', '블루마운틴',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 서머 슈즈 특집'을 열고 크룩스 슬리퍼 3만4900원, 블루마운틴 우븐슈즈 3만9000원~4만5000원,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슬리퍼 2만8000원에 판매한다.

또 같은 기간 9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머 패션 특가전'도 개최, 'DK버킷'의 티셔츠·블라우스 7000~1만원, 'JEEP' 반바지 3만8700원, '버커루' 티셔츠 1만

5000원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남성들을 위한 '서머 재킷 특집'도 진행한다. '킨복by킨 록맨더슨', '레노마', '클립캠브리지', '올젠', '캘럭시라이프스타일', '본'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에어매쉬, 린넨 소재의 여름용 재킷을 7만9000원~25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스포츠 선글라스 특가' 행사는 11일~20일 6층에서 열리며 '코코락'의 아동용 선글라스 3만 9000원, 'SNRD'의 아동용 선글라스 5만8800원, 'N'BRAND'의 'HOLLY' 선글라스 3만5000원 등이 준비돼 있다.

11일~17일에는 '페라카모'의 선글라스 팝업스토어, 18일~24일에는 '레이벤'의 선글라스 팝업스토어가 1층에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13일까지 '스포츠·아웃도어 여름 상품전'과 '초여름 해외 유명 브랜드 데일리로 대전&역시즌 상품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우선 9층 점점시장에서는 '아디다스 VS 나이키 스포츠 라이벌 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디다스 여름 티셔츠를 1만9000원부터, 트레이닝 상의·운동화를 2만9000원부터 만날 수 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블랙야크, 밀레, 빈폴 아웃도어, 아이더, 네파 등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의 봄·여름 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프랜치 시크 데일리로 완성,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이 열린다.

'홀라', '겐조', '빔바이올라', '썸프와데 꼬뜨노에' 등 인기 유명 해외명품 브랜드를 40~80% 할인 판매할 예정으로, '폴앤조'는 고별전을 통해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여름시즌 역시즌 상품 행사도 있다. 니트 전문 브랜드 '유닛'이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니트의류 사계절 의류 균일가전을 진행한다. 반팔 니트, 카디건 등 인기의류를 1·2·3만원 균일가에, 이월상품은 최대 80% 할인한다.

또 3층 박성룡 모피에서는 오는 24일까지 '미리 준비하는 겨울'을 주제로 밍크코트를 매장에 가져오면 올해 신상품 밍크롱코트 등을 정가가 대비 40% 할인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블루마운틴 매장에서 직원이 '서머 패션 페스티벌'을 앞두고 여름철 인기상품인 우븐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광주지역 백화점들은 평년보다 빠르게 여름행사에 돌입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5월 나들이철에도 "금겹살 없다" ... 삼겹살 하락세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을까지 가격 약세 예상

'금겹살'이라 불리던 삼겹살이 나들이철 대폭임에도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불·가을철 값이 올라 귀한 대접을 받던 삼겹살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오는 가을까지 가격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삼겹살(국산냉장·종품) 100g의 소매 가격은 18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 1858원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1년 전 가격 2097원과 비교하면 13.7% (289원)가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금겹살'이라 불리며 값비싼 가격에 팔렸던 삼겹살의 가격하락세는 돼지 사육 마릿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축산물 관측정보를 살펴보면 올해 3월 전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1778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모돈(母豚·어미돼지) 사육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106만 마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육하는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출하량도 자연스레 증가했다. 지난해 1~23일 하루 평균 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고기 마릿수는 6만9382 마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늘어났다. 지난해 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는 총 145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134만 마리로보다 7.9%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역시 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는 139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많았다고, 생산량 역시 7만4000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돼지고기 수입량도 늘어났다. 3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6%나 증가한 3만 7985t을 기록해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다만, 삼겹살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달 1만7823t보다 1.9% 감소한 1만7483t을 기록했다. 하지만 냉동 가공육 원료인 전지와 후지는 24.4%나 증가했다. 돼지고기를 들여오는 국가로는 미국 40.8%, 독일 15.5%, 스페인 13.9%, 네덜란드 6.4% 등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등급 판정을 받은 돼지 마릿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이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6월을 지나 9월과 10월까지 돼지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마트, 에어컨·선풍기 할인 판매

4월 선풍기 매출 80% 늘어

이마트는 10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신형 에어컨과 자체브랜드 선풍기를 할인 판매하는 '얼리버드 여름가전' 행사를 진행한다.

노브랜드 표준형 선풍기와 탁상용 선풍기를 2만9800원과 1만48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일렉트로맨 표준형 선풍기와 스탠드형 선풍기는 16일까지 최대 14% 할인한 3만9800원과 5만9800원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이마트는 여름 선풍기 판매량의 3분의 1 수준인 12만여대 자체브랜드 선풍기를 확보했다. 여름 필

수 가전이 된 에어컨은 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할인 쿠폰도 준다.

23일까지 삼성전자나 LG전자 에어컨을 삼성·KB·신한·NH·우리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별로 최대 3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6일까지 이마트 앱에서는 최대 10만원 할인혜택이 있는 쿠폰을 증명한다.

이마트는 올해 이른 더위를 대비해 예년보다 2주 앞당겨 3월 말부터 선풍기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 선풍기 구매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고 매출도 80%가량 뛰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해수부, 이달말까지 비축 수산물 5740t 방출

해양수산부는 9일 어한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5740t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고등어와 오징어, 참조기, 멸치 등 대중성 어종 대부분의 금어기가 4~5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515t, 오징어 42t, 고등어 93t, 참조기 50t, 삼치 40t 등으로,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에 따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방출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시락이 컵라면을 누르고 편의점 대표 먹거리에 등극했다.

편의점 CU(씨유)는 최근 5년간 도시락과 컵라면 매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도시락이 컵라면 매출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도시락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컵라면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과 2015년 도시락과 컵라면의 매

도시락이 컵라면 이겼다...편의점 대표 먹거리 등극

출 비중은 3대 7정도로 컵라면이 압도적으로 높은 매출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편의점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면서 도시락 49.1%, 컵라면 50.9%로 그 격차가 단숨에 좁혀졌고, 지난해 도시

락 52.1%, 컵라면 47.9%로 처음으로 도시락이 컵라면 매출을 앞섰다.

올해 1~4월에도 도시락 53.7%, 컵라면 46.3%의 비중을 보이며 매출 역전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시공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061)683-0485 (061)726-0482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